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류의 세계화를 환호하는 온갖 미디어의 찬사가 밀물처럼 밀려드는 중이다.

"봉준호는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라는(인디 와이어·Indie Wire) 대목처럼 그의 전작들이 하나의 회로를 타고 오버랩 된다. 소수 지배층과 다수 피지배층 간의 위계질서가 저지르는 만행을 블랙 유머로 그려 낸 그의 세상 관찰담이 '봉준호표 장르'로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세계 향해에 들어선 봉준호 선박은 한국 사회의 부당한 현실을 풍자하며 공명을 일으킨 힘으로 큰 바다로의 탈주 여정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일관된 부조리한 세상 탐구 여정의 출항은 '지리멸렬'부터 되새겨 보면 더욱 흥미롭다. 마침 필자가 진행 중인 '시나리오 실습' 수업에서 이 작품을 교재 삼아 영화와 현실 관계를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며 나는 공간대 경향이 생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예전에 본 영화를 다시 보노라면 이전과 달리 특별한 요소들을 보다 새롭게 발견할 때가 있다. 그간 흘러온 세월 속에서 목격한 부조리

봉준호의 '기생충' 탐구 여정

한 사건들, 그에 따른 고뇌들이 영화 이미지에 더 강렬하게 투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시 보면 더 잘 보이는 고전이나 결작의 힘이 매혹이다.

아카데미 졸업작으로 봉준호가 연출한 '지리멸렬'(1994)은 세 개의 에피소드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단편영화이다. 이후 그가 연출한 '플란다스의 개' 이후 '살인의 추억'과 '괴물' '마더', 그리고 세계 향해에 들어선 '설국열차'와 개봉 예정작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봉준호식 세상 탐구 여정은 '지리멸렬'에서 이미 명시된 것처럼 보인다.

영화에 나오는 기관·인물 등은 모두 주제적·시사적 의미가 없다는 자막 설명으로 열린 영화의 검은 화면에선 건강체조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다. "...열 구리 돌리고... 하나, 둘, 셋, 넷..."하는 그 음악은 낮익지만 반복하고 싶지 않은 국민 동원성 구호이기도 하다.

'에피소드 1=바퀴벌레'에서는 전형적인 지식인으로 보이는 한 중년남의 출근 길을 보여 준다. 젊은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셔츠 어깨 부분을 내리고픈 그의 욕망을 판타지 이미지로 보여 주기도 한다. 이어 연구실에서 그는 여성 나체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전시하는 포르노 잡지 감상에 몰두하다 강의 시간인 걸 발견하고 급히 강의실로 이동한다. 그는 현대 사회 심리론으로 아도르노의 권위주의적 성격 실험을 강의하다가 수강생들에게 나눠 줄 복사본을 챙겨 오지 못한 실수를 발견한다. 그는 과 대표 김 양에게 복사본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한 뒤

또 다른 더 큰 실수를 기억해 낸다. 책상 위에 그의 취미 생활인 포르노 잡지를 두고 온 것이다. 그는 5분간 휴식하자며 급히 연구실로 뛰어간다. 간발의 차이로 엘리베이터를 탄 김 양보다 먼저 도착한 그는 그녀가 보기 전 책상에 책을 던져 포르노 잡지 감추기에 성공한다. 그는 "바퀴벌레가 있어서..."라는 핑계로 자신의 과오를 감춘다.

'에피소드 2=골목 밖으로'에선 조깅 중인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다 잠시 커다란 집 앞에 멈춰서 인적을 살핀 후 그 집 계단에 앉아 거기 놓인 우유팩을 마신다. 마침 그 집에 신문을 배달하던 소년을 마주치자 그에게 또 다른 우유팩을 권한다. 고달픈 알바 소년에게 친절을 베푸는 배려라도 한 듯이 "아이 시원하다!"하며 그는 다시 뛰어간다. 신문 배달 소년이 우유를 마시는 바로 그 순간 집에서 나온 아줌마는 그를 매일 사라진 우유팩 도둑으로 몰아 손찌검까지 하며 호되게 꾸짖는다.

'에피소드 3=고통의 밤'에선 술 접대를 받은 취객 남성의 혼란스러운 귀갓길 여정이 재현된다. 너무 늦은 데다 만취한 탓에 귀갓길이 지연된 그는 어느 아파트촌 잔디밭 구석에서 용변을 보려다 경비원에게 들켜 교훈을 듣는다. 경비원은 화장실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 비상책으로 그들의 지하실 해결책을 알려주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엔 맞지 않는 교육에 분노하며 비열한 해결책을 실행한다.

'에필로그'에서는 범죄 사회 문제를 다룬 긴급 TV토론으로 세 개의 에피소

드 주인공들을 한자리에 모아 재현해 낸다. 바퀴벌레 핑계를 대던 교수는 사회심리학을 대변하는 지식인, 그리고 남의 집 우유를 훔쳐 먹으며 영동한 소년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조깅남은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 이어 접대 관습에 쫓겨 자신의 용변도 비도덕적으로 처리하는 비열남은 법적 질서를 대변하는 부장검사이다.

사회 권력층의 위선적 괴물 행태가 폭로되면서 나오는 뻘한 교훈적 조언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TV의 스위치를 끄는 신문 배달 청년, 그리고 양치질을 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익은 교수님 목소리가 반가워 열심히 TV를 보는 김 양, 밤거리에서 대형 화면으로 중계되는 TV 토론 장면은 지리멸렬이란 제목을 증명해 준다. 1994년 봉준호가 영화로 풍자했던 지배 계층의 헬조선풍 관습은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2019년 성병적 관습의 현실적 카르텔을 암시한 것처럼 보인다.

▲**팁 하나:** 봉준호는 '지리멸렬' '에피소드 2' 등에 등장하는 신문 배달 청년의 형 역할로 '에필로그' 부분에 잠시 등장한다. 마치 히치콕이 카메라 출연으로 자신의 영화에 등장했듯이.

봉준호표 영화 세상에서 바퀴벌레를 포함한 기생충은 핵심 기호로 보인다. 6년 전 다산포럼에 기고한 '설국열차 타고 써늘하게 인류를 돌아보기'(광주일보 2013년 8월 6일 자 19면)에서 바로 그 부분에 주목한 바 있다.

기고

우리는 역사에 빛진 사람인가, 빛을 낸 사람인가



이지현
5·18 부상지동지회 초대 회장·시인·연극인

광주. 기다리지 않은 5월, 아니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하는 5월이 익어 간다. 어린이에겐 희망, 어버이에겐 효성을 바치는 기쁨과 환희의 달, 그야말로 찬란한 5월이다. 그러나 장미보다 붉게 물든 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5월 당사자들과 애국 시민들이다. 앙상 있는 사람들은 80년 그날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5월이 되면 5월 중추군을 앓는다.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 평범한 시민들을 길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천형의 땅을 염습한 80년의 광풍. 군항백에 짓궂게진 그날의 악몽과 주먹발 공동체의 환희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필자가 온 가정 이 품비박산이 났다. 필자가 부상당하고, 남동생이 연행당하고, 어머니는 실성하고, 여동생은 유가족과 결혼하여 죽고... 어디 필자만의 상처인가? 현혈하던 급히, 목욕하던 광범이, 말 못하던 경찰이, 27일 새벽을 밝히던 종필이, 가슴이 잘리고 수많은 총알을 맞아야 했던 그녀... 슬픔과 분노, 아니 기가 막혀 차마 눈물마저 흘릴 수 없었던, 하나님도 부처님도 외면해 버린 그날이었다. 진실은 암매장당한 채 39년의 세월이 떠났다. 그러나 행여 행방불명이 된 자식이 돌아올까 봐, 이사도 안 간 채 대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애환이 있고, 구 전남도청의 원형 보존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의 함성이 푸르른 하늘에 메아리치는 한, 광주의 5월은 아직도 겨울 공화국에 열여 있다.

2019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장. 80년 5월 27일 새벽, 번뇌하는 시민들에게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의 아들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도청으로와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절규했던 박영순 여사가 등장하여 그날을 회상해 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5월 27일 마지막 새벽을 지키다 산화한 안종필 열사의 조카가 "삼촌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꼭 이루겠다"는 결의를 하여 숙연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 부끄럽다"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었다. 39년 전에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고백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대통령도 울고, 역사도 울고, 참석자도 울어 버렸다. 80년 5월에 침묵한 하나님과 부처님도 울지 않을까?

5·18을 왜곡 폄훼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광주를 방문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올해 기념식에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참여했다. 계란이라도 맞아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줄 모른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광주의 꿈'도 포기한 채 분향도 하지 못하고 떠

났다.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물러난 광주를 채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극기 부대였다. 그들은 80년 5월의 공수부대, 아니 점령군처럼 시내를 활보하며 구호를 외쳤다. 광주 시민들에게엔 발표 명령과 기총소사로 들렸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며 광주를 활취고 쓰나미처럼 지나갔다. 그분들도 분단된 조국의 희생양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고통스럽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5월 광주에 대한 매도가 황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광주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슬프다. 지역 감정과 역사 왜곡을 부추겨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우리 역시 5월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40주년이 2020년 전까지는 절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 불면의 역사를 잠들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살아 남은 자의 의무 아닌가? 그래서 묻는다. "우리는 역사에 빛진 사람인가 빛을 낸 사람인가?"

나입니다. 제한 없이 열려 있는 공개 범위를 비공개 계정으로 바꾸거나 지인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줄이고 계정에 모르는 사람이 팔로워를 건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파악한 뒤 신중히 받아줘야 합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DM과 같은 소셜 소통을 이용해 접근해올 때는 거기에 대해 먼저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신중히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계정 비밀 번호를 자주 바꿔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계정을 해킹당하는 일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깨고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과 편리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효율성만 달콤함 뒤에 감춰진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범죄를 이제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달콤함을 맛보기 전에 그 뒤에 숨겨진 독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한번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독이 아닌 독이 되는 소통을 위해서 말입니다.

社說

소득 높이려면 '생산 따로 가공 따로' 틀 깨야

전남은 국내 최대의 농수축산물 생산지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득액은 생산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해 다른 지역에서 가공·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남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난 2017년 기준 319만 2260t으로 전국 대비 생산량이 20.5%, 생산액은 7조 390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소득액은 생산액의 절반 수준인 3조 9903억 원(52.7%)에 불과하다.

수산물 생산량 점유율은 농산물보다 훨씬 높다.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184만 2000t으로 전국의 56%에 달했지만, 생산액은 2조 8670억 원으로 38%에 그쳤다. 이들 수산물이 지역 내에서 가공되는 비율은 26%에 머물렀다.

축산물 생산량 역시 오리 53%, 한우 17%, 돼지 10%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내 가공 제품 생산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공·유통 기업이나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단순 생산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전남 도내 매출 100억 원 이상 농식품 업체는 30곳, 수산물 가공 업체는 19곳이지만 상당수가 대기업 공장이거나 하청 업체로 자체 브랜드가 없고 영세하다. 이로 인해 전남의 농수축산물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물 상태로 충남·경남 등 역외로 유통돼 가공·유통·수출되고 있다.

농수축산물은 가공·유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다. '생산 따로 가공 따로' 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공·유통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량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소비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 기밀문서 확보' 외교적 노력 절실하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미국의 5·18 관련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 자료가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부분 왜곡·조작된 상황에서 미국의 자료에 5·18 진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군부 세력은 1985년과 1988년 범정부 차원의 군 비밀조작인 511연구위원회와 511분석단 등을 운영했으며 이러한 조직을 통해 1980년 5·18당시 부대 투입 일시와 장소 등 중요한 내용을 조작했다.

그동안 5·18기념재단과 5·18기록관 및 연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써 왔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우 수십 년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73-1983년 비델라 군사정권 관련 미국 기밀문서(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사이 이관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미국 정부 기록은 진상 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각종 비밀 문건을 한국 정부가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5·18과 관련된 비밀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5·18 관련 기밀문서에는 발표·확산 경위, 헬기 사격, 공작 활동,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범정부 차원의 기밀 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만행과 관련한 미국 자료를 이관받을 것처럼 우리 또한 정부가 기밀문서를 조속히 확보해 5·18 진상 규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배우 '로버트 드 니로' 하면 강렬하게 떠오르는 영화 몇 장면이 있다. 먼저 '성난 황소'의 첫 대목.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 타카나'의 아름다운 간주곡을 배경으로 링 위에서 몸을 푸는 한 복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에서 그는 챔피언 제이크 라모타로 변신, 명연기를 보여 준다.

'택시 드라이버'도 인상적이다. 그가 대통령 후보 암살 계획을 세우고 권총을 구입한 뒤 체력 단련을 하는 모습이나 영화를 마지막, 자신의 머리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는 송강호다. 그는 봉감독의 7편 중 '살인의 추억' 등 4편을 함께했다. 기발한 전개가 인상적이었던 '플란다스의 개'를 보고 팬이 된 나는 봉 감독의 장면은 모두 챙겨 봤다.

시상식 중 인상적이었던 건 봉감독이 무릎을 꿇고 송강호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모습이였다. 둘 사이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느껴져서였다. 봉 감독은 '기생충' 제작 발표회에서도 "송강호는 영화를 찍을 때 제가 더 고감

'페르소나'

를 찍을 때 제가 더 고감해지고 어려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의지가 되었고

나 화사에서도 손꼽히는 이 두 편의 영화는 명장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드 니로는 흔히 '마틴 스코세지의 페르소나'로 불린다.

'페르소나'(persona)는 '가면'을 뜻하는 그리스 말이 어원이다. 영화와 관련해서는 한 감독의 예술가적 정체성과 영화 세계를 표현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감독의 분신'으로 불린다. '영웅본색'의 우우삼과 주윤발, '가위손'의 팀 버튼과 조니 뎀 등이 대표적인 커플이다.

'기생충'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하나무므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 강호 선배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극찬했다. 송강호는 "제가 메시는 아니지만, 마음껏 죽구 하듯 뭘 해도 다 받아 줄 것 같은 이가 봉 감독"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부럽다.

무엇을 해도 서로 온전히 믿어 주고 의지가 되는 이가 곁에 있다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다. 나오편, 당시에겐 그런 사람이 있는가./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청춘 특·특

SNS, 독(毒)인가? 득(得)인가?



이수정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1학년

혹시 어렸을 적 '백설 공주'라는 동화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백설 공주는 왕이 들어온 새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백설 공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 새 왕비는 공주를 죽이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독(毒) 사과입니다. 백설 공주는 여러 번 위험을 받았지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사과의 달콤함만을 믿고 독 사과를 베어 물어 결국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소통은 삶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지면서 SNS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정신의학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24억 6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셜 소통, 그 사용 시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SNS를 통한 범죄 또한 비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범죄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SNS를 통한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진과 해시태그, 공개 범위 속에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올렸던 일정과 개인 정보가 담긴 비행기 탑승권, 공연 시간과 결제자

의 이름이 담긴 공연 티켓,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주소 스티커가 붙어있는 택배상자와 같이 사진을 올리면서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SNS에 일상을 적은 뒤 위치를 태그함으로써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정보를 담은 계정이 제한 없는 공개 범위 하나를 통해 곳곳으로 노출되면서 유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털거나 스토킹하는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범죄를 막기 위한 해결책은 게시 글을 올리기 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위치 태그가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메라 속 위치 태그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위치 정보는 등 유용하게 쓰이지만 때론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주소, 연락처, 직장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사진이나 프로필 정보에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515	220-0541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0-0632	220-0633	220-9600	업무국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220-0663	220-0692	220-0195	(FAX 222-0195)
220-0664	사진부	220-0693	다자인실
220-0664	220-0693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42	220-0536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